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강정미	학번	
이메일	kjm@bok.or.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MSU / MSF	(국가) US
기 간	2020.1.13~2020.12.11	[귀국일: 2020년 8월 1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강정미 (인)

1.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MSU가 위치한 미시건은 조용한 대학도시입니다. 1월에 맨 처음 미시건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조용하고 깨끗하다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춥지 않다였던 것 같습니다. MSU로 가기 전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신 건 미시건이 춥고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면 다른 학교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이 유난히 날씨가 좋았던 건지 겨울추위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맑은 날이 많아서 날씨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직항을 이용하였고 공항버스를 이용해 미시건으로 왔습니다. 공항버스 터미널부터 학교까지는 지도교수님께 미리 요청드려서 외국인 학생이 정착도우미로 저를 픽업하러 와 주었습니다. 저는 늦은 오후에 미시건에 도착해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동기들은 정착도우미에게 부탁해서 은행계좌 개설이나 핸드폰 개통 등을 도움받기도 했습니다. 정착도우미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 주변에 관련시설이 모여있고 외국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알아서 처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큰 문제 없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초기 생활은 많은 한국인 학생들로 인해 수월하였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반학기를 이수한 학생들도 있었고 같이 KDI에서 수업을 듣다 MSU로 온 동기들도 많아서 수업을 챙기고 학교에서의 생활을 차근차근 익혀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 담당 지도교수님이 초기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잘 해주셨고 이후 학교생활 중 생기는 질문에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은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한국인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를 쓸 일은 자연히 많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입니다.

2.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MSU의 수업의 질은 기대보다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경영학이었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있는 편이어서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MSU의 교수님들은 대부분 수업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셨고 수업내용도 훌륭했습니다. 수업내용이나 수업에서 내주는 과제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수업평가는 과제와 시험이 반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제는 주로 팀과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도우면서 무리 없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온라인 상에서도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졌고 한국으로 조기귀국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이 대부분 늦은 밤이나 새벽이라서 일상생활을 불규칙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수업으로 갑자기 바뀌다 보니 평가시험 형태나 내용이 예전과 달라져서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데도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수업내용이 녹화되어서 제공되기 때문에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수업은 여러 번 다시 반복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3.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MSU의 finance 학위과정은 의무 학점과 수업이 정해져 있어서 개인이 수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인 지도교수님이 대략적으로 일년간의 수강표를 짜주시고 그 안에서 과목을 한 두개 정도 조정하는 수준으로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봄-여름-가을 학기에 4-1-2 개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봄 학기 중간고사 직후부터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봄 학기에 그나마 대면수업을 조금이라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없더라도 첫 학기에 수업을 많이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모든 학생의 학업의욕이 가장 높을 때라 4과목 정도는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무리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여름으로 넘어가면 학업보다는 미국생활의 다양한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가을학기로 오면 복귀준비 때문에 학업에 할애할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해 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봄학기나 여름학기의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기초과목들로 쉬운 과목들이 배치되었고 가을학기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수업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도 봄학기에 수업을 최대한 많이 듣는 것을 후배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과목들은 재무이론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공이 경영학이나 경제학인 경우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DI의 수업은 경제학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KDI에서 수강했던 과목들과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비전공자인 경우 KDI에서 회계과목 등 최대한 재무관련 수업을 듣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MSU는 한국인 동기가 많고 한국인 학생들도 대대로 많았기 때문에 수업내용이나 교재, 시험 등에 대한 정보가 많았고 필요한 경우 전공자인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스터디도 할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비전공자도 학위를 이수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학위에 관심있는 후배들은 경영학이나 경제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학업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봐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저는 가족없이 혼자 나가게 되어서 학교 기숙사를 신청하여 그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MSU의 기숙사는 전반적으로 매우 노후되었고 방음이 잘 되지 않아서 시설 자체는 좋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특별히 기숙사비 외에 드는 비용이 없어서 생활비를 아낄 수 있었고 수업을 수강하는 건물과도 가까워서 학교생활을 하는 데는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MSU의 학생식당은 가격대비 음식의 질이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뷔페식으로 준비되는데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였고 질도 좋았습니다. 학교 내에 8개 정도의 기숙사 건물이 있었는데 기숙사 건물마다 학생식당이 있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이나 외부인도 아침, 점심, 저녁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마다 음식이 다르게 준비되었으며 아시아계 학생들을 위한 음식도 종종 나왔습니다. 학생식당이 꽤 좋아서 현지인들이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식당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음식 때문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 기숙사는 대부분 다른 학생과 공동으로 방을 써야 합니다. 개별룸이 있는 기숙사는 경영대학원 건물 근처에 있는 OWEN HALL 뿐이고 기숙사 신청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이용하실 분들은 신청기간을 잘 숙지하셨다가 최대한 빨리 기숙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OWEN HALL 조차도 침실만 개별룸이고 욕실은 2명에서 쉼어하는 구조라 이런 점이 걸리시는 분들은 학교아파트나 외부에 숙소를 정하시는게 낫습니다.

5.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학교에서 Admission을 받아서 제출하면 비자 신청은 간단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미시건은 한인들이 꽤 많이 사는 곳으로 포털 내 한인카페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비자를 통해 출입국하였기 때문에 관련절차에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공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중단되자 먼 거리 이동은 한인카페를 통해서 한인택시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GMP 때 매우 특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봄학기 중간고사 이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고민 끝에 여름학기를 마치고 8월 중순에 한국으로 조기귀국하였습니다. 저는 가족 없이 혼자 미국에 갔었고 학기별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기숙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조기귀국에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생활과 여행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에 대한 미련 때문에 조기귀국을 결정하는데는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코로나 상황은 한국보다 심각하였기 때문에 미국에 남았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조기귀국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미국에서 여행도 다니지 못했고 영어도 많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은 GMP 기간이었습니다. 그외에 학교의 분위기나 시설, 학업내용 등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디 후배들은 코로나가 나아진 상황에서 GMP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담아 귀국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손희중	학번	
이메일	redhotpompomy@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MSU / FINANCE	(국가) 미국
기 간	2020.01.06 ~ 2020.12.18	[귀국일:2020년 12월30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월 18일

신 청 인: 손희중 (인)



1.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미시간의 기후는 겨울철 기온이 한국에 비해 춥기는 하나 전 지구적 기후변화 때문인지, 최근에는 겨울철 추위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4계절 중 겨울로 여겨지는 시기는 12월부터 다음해 3~4월까지로 좀 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겨울 외의 계절이 모두 화창하고 매우 쾌적하여 다른 지방에 비해 조금 길다고 느껴지는 겨울철의 아쉬움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시간은 거대한 오대호에 둘러 싸여 있어, 미국 내륙지방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해변으로의 여행이 손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캐나다 여행이 불가하여 더욱 북쪽으로 여행할 수는 없었지만, 미시간이 사실상 캐나다와 동일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미시간 북부 지역을 여행하면 캐나다의 자연환경과 동일한 지형과 식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MSU에 수학하는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OKEMOS에 있는 센트럴파크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아파트가 조금 오래된 느낌은 있지만, 거주하는데 별다른 불편은 느낄 수 없었고 학군이 매우 좋아서 자녀들 교육에는 더없이 좋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공립학교(코넬 초등학교, 키나와 중학교)들도 매우 훌륭하고, 근처에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St. Martha School, St. Mary School)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코넬초등학교 등 공립학교들은 모두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했지만, 등교를 하던 3월초까지의 기억을 되새겨보면 선생님들도 훌륭하시고, 같은 반 현지인 친구들도 대부분 순수하고 좋은 아이들이어서 자녀들의 학교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후 아쉽게도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했지만 학교측의 준비가 덜되어 있던 첫학기와는 달리 9월 이후부터는 온라인수업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매우 내실있게 제공되어 대부분의 부모들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희는 공교육 대상이 아닌 프리스쿨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어 이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도착해 동네분에게 YMCA 프리스쿨을 추천받았으나 자리가 없었고, 집에서 가까운 성당부설 St. Martha School을 알아봤지만, 해당학교에서 여기도 자리가 없다며 St. Mary School을 소개해주어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동차로 15~20분 거리 Williamston에 위치한 St. Mary School은 한적한 백인 동네에 위치한 작은 성당부설 학교로, 반년치 학비를 2300불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달 등교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른 프리스쿨에 비해 학비가 저렴한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시설이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동네 가톨릭 신자로 보이는 아주머니 선생님들이 돌봐주시는데 푸근한 분위기였고 그야말로 현지인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이라 언어를 습득하는 유아기에는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요일 아침마다 전교생이 함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학부모도 같이 참석할 수 있어 미국 성당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편 St. Martha School은 처음에 아이 프리스쿨을 알아보러 갔던 인연으로 이곳 학부모들을 몇 분 알게 되었는데 부모들의 성경공부 모임도 있는 등 유대관계가 깊어 보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립학교들은 하반기부터 등원이 가능하게 되어 온라인 수업 대신 등교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학생가족들이 거주하는 센트럴파크 아파트는 쇼핑이 매우 편리하고 (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식료품 등 쇼핑이 가능) 치안도 좋아서,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MSU의 FINANCE 학위과정은 이수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할 수는 없으나, 졸업요건을 만족하려면 기본적인 공부량은 채울 수 있는 성실함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과목 별로 거의 매주 숙제가 있습니다.) 교수님 대부분이 매우 열정적이고 학생들이 뒤쳐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분도 꽤 있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세계적인 석학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묘한 즐거움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MSU의 FINANCE 학위과정 졸업을 위해서는 최소 7개의 과목(각 3학점으로, 총 21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봄학기 4과목, 여름 1과목, 가을 2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봄학기가 사실상 겨울철이라 바깥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봄학기에 몰아서 공부하고 여름부터 가을학기의 자유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스케줄(4과목, 1과목, 2과목)로 학업을 이수하였습니다. 다만, 혼자 공부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봄학기의 미국 생활 정착 과정에서의 혼란과 어려움으로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니, 자녀 케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봄에는 3과목만 듣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자녀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영어가 아직 부족한 자녀들의 수업을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부에서 경영학 또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의 경우에는 용어나 개념 등이 그리 낯설지 않기 때문에 초기 학업적응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KDI에서 수학하시는 동안 기초적인 수준의 한국어로 된 재무관리 교재를 미리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의 강도는 전체적으로 봄학기가 가장 힘든 편입니다. 여름과 가을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봄학기 수업이 쉽지는 않더라도, 모든 과목에 있어서 앞서 공부하신 분들이 구축한 방대한 참고자료(족보)가 튼실하기 때문에 학부에서 이 과목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저는 영어로의 의사소통에 자신이 없어 논문이나 긴 문장을 나열해야 하는 서술식 시험에 자신이 없었는데, MSU의 FINANCE 과정은 논문제출 부담이 없고, 시험문제도 계산 공식이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는 정도로 해결이 가능한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녹화해주셔서, 강의내용이 잘 들리지 않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다시 보기를 통해 해당 내용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제가 거주하던 센트럴파크 아파트에서 차로 10~15분 거리에는 중소규모의 한국식 료품점(롯데마켓)이 있어서 쌀, 김치, 된장, 고추장 등 한국요리의 기본이 되는 식재료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짐을 싸실 때 한국식재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전임자에게 테이크오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신규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 살림살

이를 마련해야 하고 렌트가 상대적으로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만 리싱오피스에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내놓기 때문에 테이크오버가 계속된 집에 비해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5.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자동차 구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자동차를 미리 테이크오버 받지 못하여 미국 도착 후에 구입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현지인 딜러들과의 협상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밀고 당기는 협상 없이 중고차를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CARVANA"라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동네 딜러샵보다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해당 중고차에 대하여 기본적인 상태점검은 물론, 자동차 구입에 따른 행정처리까지 모두 대신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고차 구입 시에 머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현지 딜러들과의 협상에 자신이 없으신 경우, 정찰제 가격으로 차량을 매매하는 인터넷 중고차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저의 경우,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하여 MSU에서의 재무학 석사과정이 학습 과제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과 소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KDI에서의 1년차 과정 때 교수님들이 외국인 학생들과 협업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해주신 것이 미국에서의 현지학생들과의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한 교수님들이 사실 조금 야속하기도 하였지만, 지나고 보니 KDI에서 타문화권의 외국인 학생들과 미리 협업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다면 미국에서의 학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미국에서 아파트를 임차할 경우, 해당 가옥에 대해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료를 아끼려면 자동차보험과 묶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리싱오피스에서 가입하라는 보험을 가입한 후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곳에서도 견적을 받아 더 저렴하다면 그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한편 가재도구 등 살림에 대한 보상액을 최대한 낮게 잡으시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으므로 리싱오피스에서 요구하는 최소 보상액만 맞추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8.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국 외 다른 나라에 다녀오신 분들은 물론, 미시간이 아닌 미국의 다른 지방에서 수학하신 분들 또한 본인이 다녀오신 곳의 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시간은 특히나 자연환경이 청정하고 자녀교육 여건이 훌륭하여, 우리 가족의 경우 지난 1년 간의 미시간에서의 아름다운 시간이 너무나 찰나와 같이 지났다고 느껴집니다. 어차피 바깥 활동이 여의치 않은 겨울에는 밀도 있게 학업량을 채우고(1년 학업량의 70%를 4개월 동안 소화 가능), 미국 내 다른 지방에 비해 여름과 가을철 기후가 매우 훌륭한 미시간의 생활이 참으로 값지게 느껴지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080 FAX: 82-44-550-1232

HOME PAGE: <http://www.kdischool.ac.kr>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이 국 진	학번	
이메일	Kjlee95a@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MSU / Finance	(국가) USA
기 간	2020.1월 ~ 2020.12월	[귀국일: 년 월 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 년 1 월 13 일

신 청 인 : 이 국 진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미시간은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반면 봄과 여름 날씨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긴 하지만 재설 작업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 근처 언덕에서 눈썰매도 탈 수 있고 한국에서 많이 구경하지 못한 눈을 볼 수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미국을 여행할 때는 동부 쪽에 가깝기 때문에 동부를 여행할 때는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서부 지역은 대부분 비행기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전역을 자동차로 여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여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제일 마지막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시간의 날씨는 봄, 여름에는 더할 나위없이 좋습니다만 겨울에는 흐린 날씨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사시는 분 중 몇몇은 미시간은 저희같이 딱 1년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겨울이 길고 흐린 날씨가 계속 되어서 우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개인 나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가족 중심입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는 제일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토록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3월 이후에는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24시간 함께 하는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어느 순간 이 시간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게임이나 보드 게임 등 가족들과 함께 놀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책도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계신 다른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지만, 정작 저희들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영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도 미국에 오기 전에는 그랬으니까요. 첫째는 어느 정도 영어를 말할 수 있었지만, 둘째는 영어를 알파벳만 배우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는 것은 어른과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영어 습득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고 영어 발음도 어릴수록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더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MSU 주변에 정착을 하시면 마트 등 편의시설이 모두 가까이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많지 않아서 차가 전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한인 마트는 1개 밖에 없고 규모가 작아서 한인 마트를 가고 싶으시면 1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곳까지 운전하셔야 합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수업은 현지의 대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습니다. 주로 MBA과정에 있는 현지인들과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 맞춰 수업을 진행합니다. 경제, 경영학과 출신들은 기본 지식을 있으시니 쉽게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경제, 경영 전공이 아니셔도 KDI에서 배운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크게 어려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MSU 수업을 받는 건물은 신식 건물이라서 쾌적하고 수업 받기에 좋습니다. 도서관과도 인접해 있어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으시면 도서관에 가셔도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전환되었는데, 온라인 수업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수업과 녹화된 것을 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도 수업 이후에 녹화된 것을 업로드 해주시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을 추후 시청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온라인 수업이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봄학기 때 최대한 많이 수강하고 여름 학기에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들 여행 방법이 길기 때문에 자녀들과 여행을 다니시려면 아무래도 여름 학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봄/여름/가을 4/1/2 credit으로 수강하였습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한국인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아파트는 Central Park Apartment인데, 저는 한국인들이 거의 없는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 장단점이 모두 있지만, 꼭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미시간 지역은 미국의 다른 주와 다르게 마당이 넓기 때문에 진정한 미국 생활을 느끼시려면 일반 주택에서 거주해보시는 체험(?)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코로나 이전에는 무료 영어 강좌나 자녀들 캠프가 참 많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할 수 없는 스포츠 활동도 적극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정말 좋은 기회를 선물받은 기분입니다. 공부에 전념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일 겁니다. 작은 불편이 있더라도 받은 선물을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추억들이 많이 만들고 가세요.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미국에서는 생각치 않은 지출이 좀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이것도 하고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 쓰지않아도 되는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트도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가격을 서로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지출에 생각이 얽매이다 보면 정작 즐기실 수 없습니다. 그냥 1년 동안은 미국을 즐긴다는 생각으로 작은 실수나 작은 돈은 허허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다면 보다 행복한 1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돈을 아끼지 말고 마구 쓰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국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연이 참 축복받은 곳입니다. 푸른 잔디, 우거진 숲, 광활한 대지 속에 있다보면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곳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축복을 받은 이런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물리적인 공간에 오래 같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부부끼리 무슨 대화를 나눌지 모르거나 어색해서, 자녀들과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낼지 몰라서 제각각의 즐길거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골프에 몰두하거나 자녀들은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바쁘다는 핑계가 말이 안됩니다.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평생에 1년 밖에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만 포기하시고 남편/아내나 자녀들과 마음을 다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도 많이 개발하셔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에 새겨진 행복한 웃음은 평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테니까요.

* 자동차 여행을 위한 Tip

1. 네비게이션

- 구글맵을 가장 많이 사용하겠지만 구글맵은 고속도로에서 갈림길이 나올 때 정말 많이 헛갈린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더 심하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의 네비게이션 수준을 기대하면 안되지만 그나마 그래픽과 갈림길 안내, 현재 제한속도 등을 잘 표시해주는 Sygic 을 병행하여 사용 중이다. 유료 네비게이션 앱이긴 하지만 한번만 구입하면 되고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Sygic 특징

- 유료(약 \$35), 한국어 지원
-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 인터넷 안되는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 한국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픽이 제일 나으며, 갈림길 표시를 잘해준다.
- 현재 제한속도를 항상 표시해주어서 고속도로 운전 시 편리하다.
- 경로 상에 있는 주유소, 휴게소를 표시해주어 중간에 추가하기가 쉽다.
- 다만 지명으로 검색 시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럴 땐 구글맵으로 검색 후 주소로 검색을 하면 검색이 잘 된다.
- 목적지 입구를 정확하게 찾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땐 목적지 근처에서 구글맵으로 검색한다.

Google Map 특징

- 무료, 한국어 지원
-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만 작동한다. 하지만 지도를 미리 다운로드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아래 설명 참고)
- 고속도로나 대도시 등 갈림길이 복잡할 때 정말 많이 헛갈린다.
- 뛰어난 검색 능력을 가지고 있다.
- 목적지 입구까지 거의 정확하게 검색해준다.
- 교통 정보를 계속 반영하여 중간에 빠른 길로 안내를 바꿀 것인지 옵션을 제공한다.

Sygyic 과 Google Map 듀얼로 사용하기

- 구글맵으로도 충분하지만 갈림길에서 너무 많이 헛갈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2 개의 네비게이션을 듀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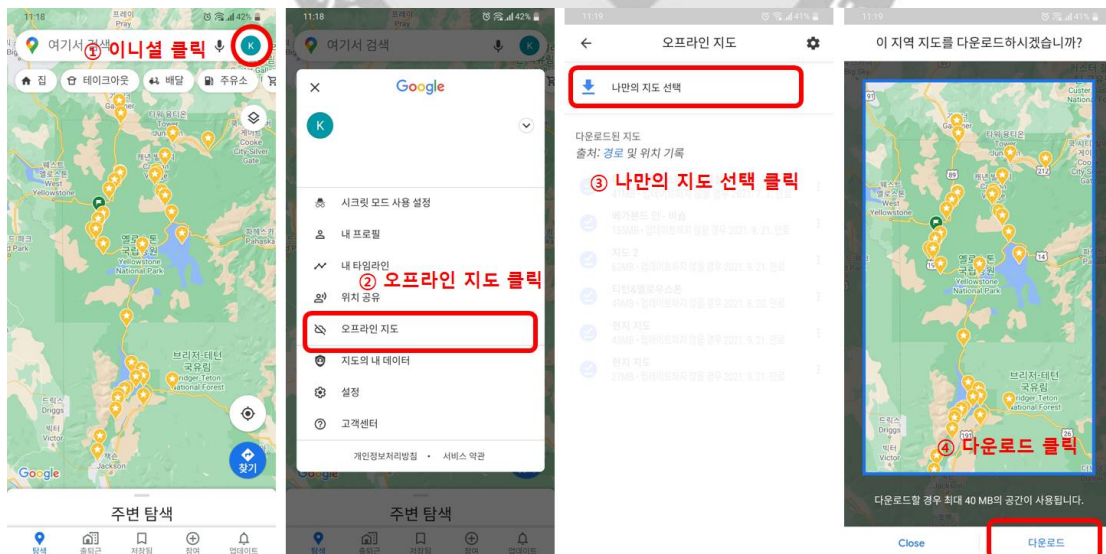


① Google Map 실행 → ② 홈버튼을 클릭하면 → ③ 구글맵이 작은 창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여기서 Sygyic을 실행하면 2 개의 맵을 듀얼로 사용 가능하다

- 2 개 맵 모두 영어/한국어 안내를 제공하는데 1 개는 한국어 안내로 1 개는 영어 안내로 설정해 놓으면 어느 네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해주는 것인지 헛갈리지 않는다.

오프라인 환경에서 Google Map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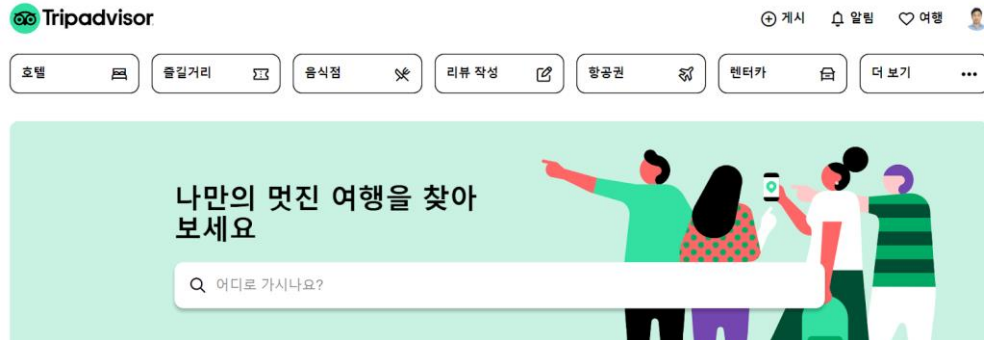
- 구글맵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는 작동한다. 하지만 맵을 미리 다운받으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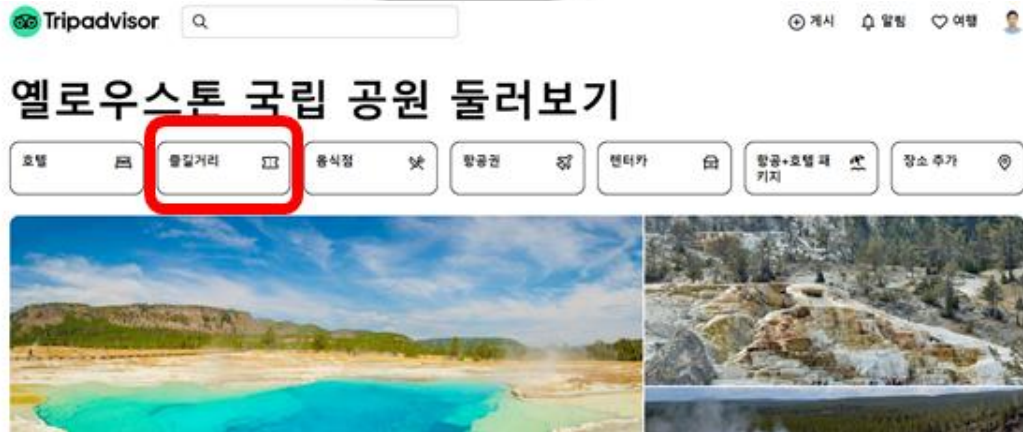
① 이니셜 클릭 → ② 오프라인 지도 클릭 → ③ 나만의 지도 선택 클릭 → ④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다운로드 클릭

2. 여행 테마 또는 메인 목적지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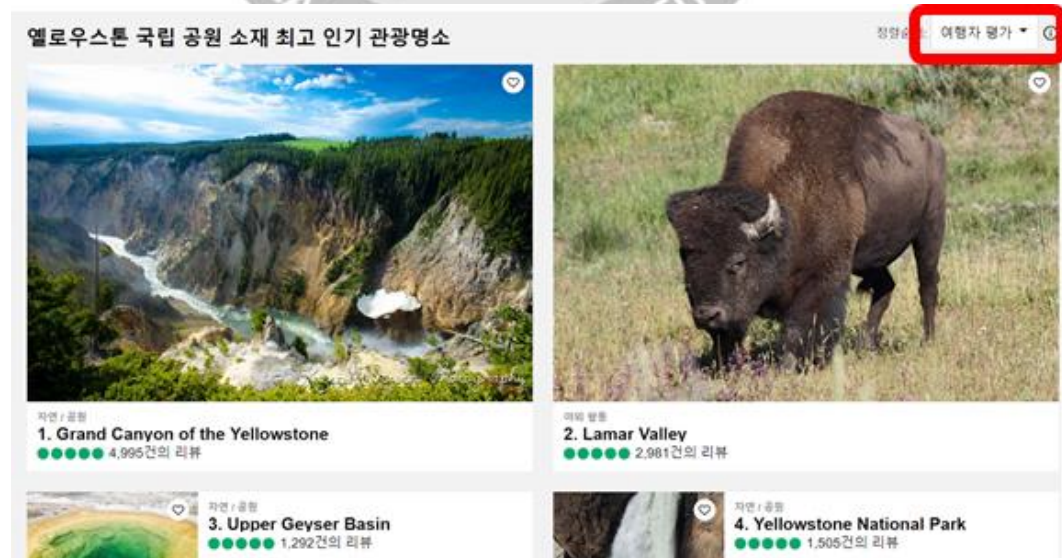
- 옐로우스톤, 그랜드 서클, 나이아가라, 뉴욕 등 동부 여행, 플로리다 등 남부여행... 테마 또는 메인 목적지를 먼저 정한다.
- tripadvisor 에 접속해서 여행 지역을 입력한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지역 범위가 작을수록 보다 자세하게 관광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state 레벨보다는 city 레벨로 검색해야 빠짐없이 유명 관광지를 검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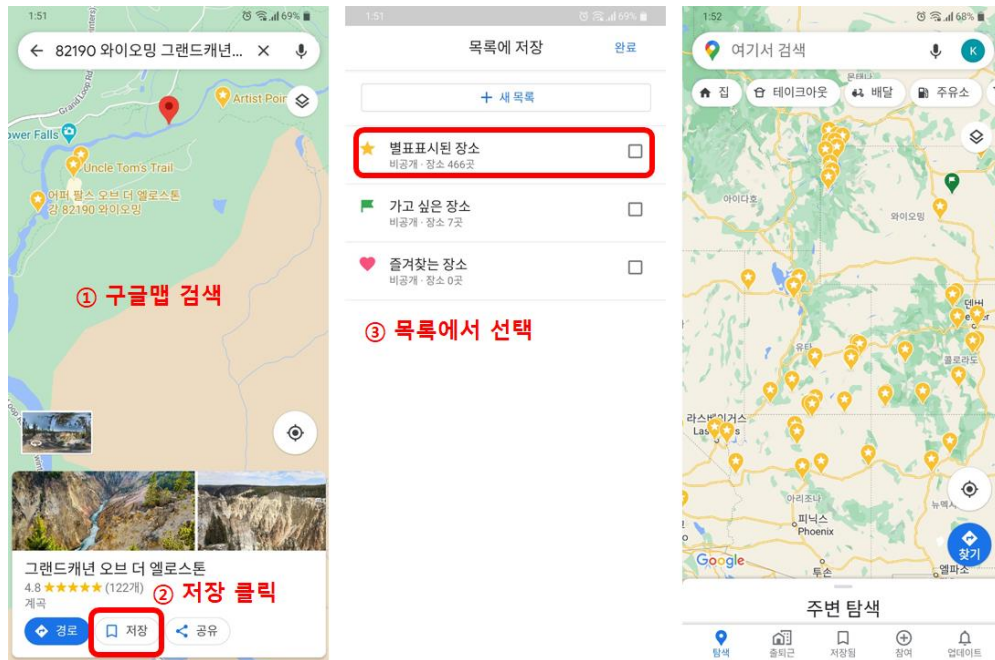
- 만약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검색했다고 하자. 아래와 같이 즐길거리를 클릭한다.



- 아래로 주욱 내리다 보면 '최고 인기 관광명소'가 있다. 정렬순서가 '여행자 평가'와 '여행자 선호'가 있는데 2가지를 모두 조회하면서 겹치거나 순위가 높은 관광지를 구글맵에 표시해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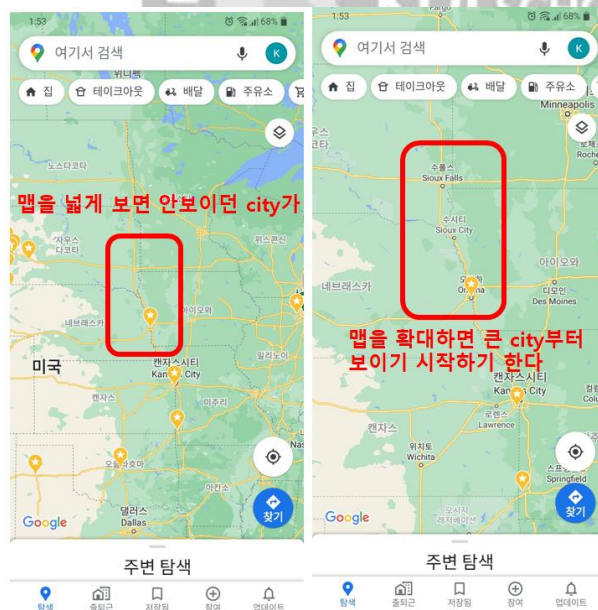


- 구글맵에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3. 중간 경유지 선택

-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처럼 24 시간 정도 걸리는 메인 목적지는 하루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 경유지를 거치게 된다. 이럴 때는 적당한 크기로 구글맵을 확대하면 큰 city 부터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도시 위주로 중간 경유지를 선택한다. 중간 경유지도 관광을 하고 가려면 처음에 설명한 것과 같이 Tripadvisor 를 통해 그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선택해 관광하면 된다.



- 여기서 한가지 Tip 은 Amazon 에서 운영하는 whole foods 매장이 있는 곳은 대부분 안전한 지역이므로 이를 참고해서 안전한 지역을 선택해도 좋다.